

# 2100년엔 목포신항·영광백수해안도로 물에 잠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 국내 해수면 상승 영향 평가

전남 도로 16.5% 침수… 호남·경전선 철도 70km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 2100년이면 목포 신항과 영광 백수 해안도로가 바다에 잠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빛(영광) 원전,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서·남해안 경제 시설도 예외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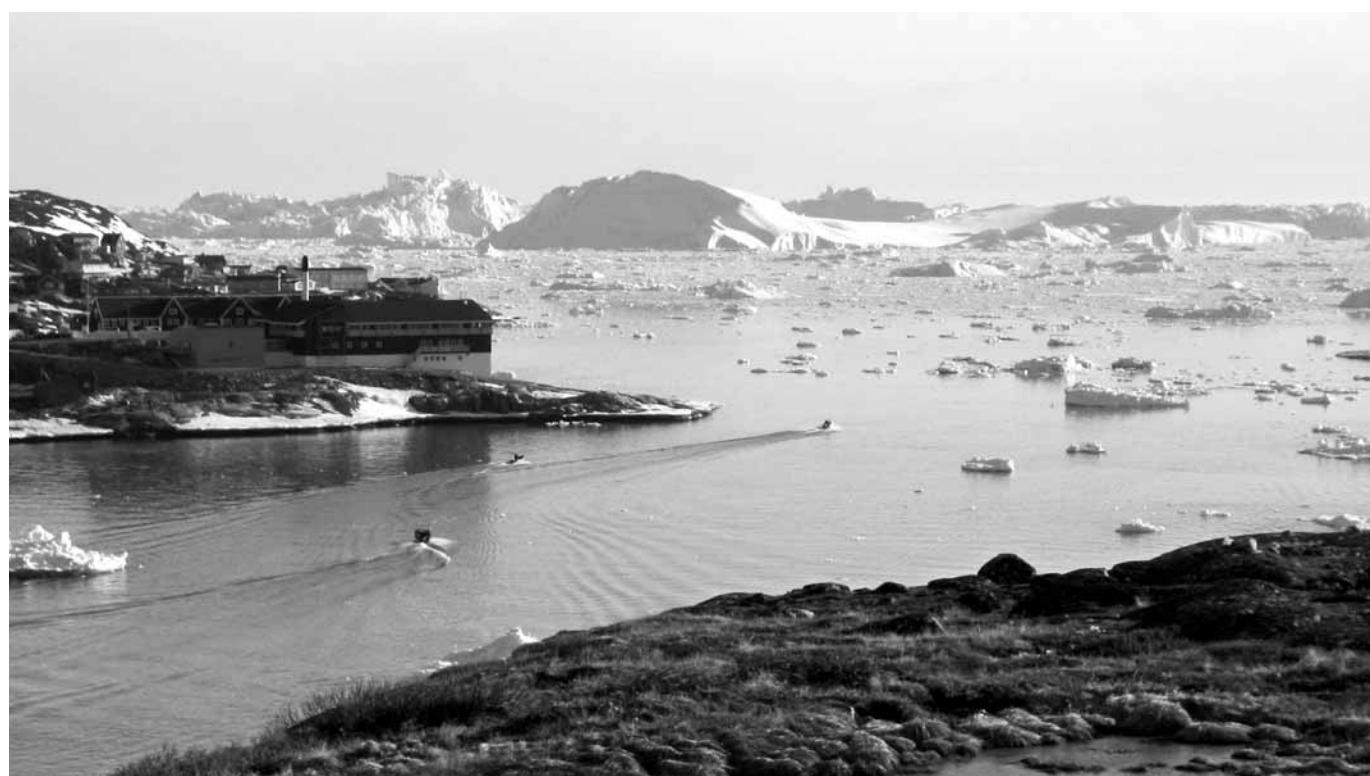
◇온난화 계속되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최근 발표한 '제 5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지난 133년간 0.85도 상승했고 해수면은 110년간(1901~2010년) 19cm정도 높아졌다. IPCC는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21세기 말에는 지구의 평균기온이 1986~2005년에 비해 3.7도 오르고 해수면은 63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2500여명의 세계 과학자들은 최악의 경우 지구 해수면이 최대 98cm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901년부터 100년간 연간 1.7mm였던 해수면 상승률은 지구 온난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최근 10년간 연간 3.2mm씩 가파르게 상승했다.

남의 얘기로 넘길 사항이 아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지난 196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해수면 높이는 연평균 2.

48mm씩 상승했다.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은 3.17mm 상승했다. 동해안(2.12mm)과 서해안(1.36mm) 상승폭도 세계 평균 해수면 1.36m로 설정한 뒤 태풍해일 피해를 주기 위해 국내 해안 지역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시설과 산업에 미칠 영향을 산출한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발표한 제5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가 현재 속도로 진행될 경우 21세기 말 지구의 평균기온은 3.7도, 해수면은 63c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로 지난 34년(1979~2012)간 북극 해빙은 10년 간 3.5~4.1% 가량 줄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평원의 '국내 해수면 상승 영향 평가'로 보면 2100년에는 국토의 3.9%(3734㎢)가 바다에 잠기고 전체 도로의 6.2%에 해당하는 5629㎢ 구간이 침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 지역의 경우 총 1만113㎢의 도로 중 16.5%에 달하는 1668㎢가 물에 잠기고 호남선과 경전선 철도 70여km가 침수돼 쓸 수 없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도 담겨

있다.

예상되는 산업 시설 피해도 엄청나다.

여수·광양·대불산업단지 등 국가산업단지 4곳과 일반산업단지 10곳 등 전남 산업단지의 143㎢가 물에 잠기는 것으로 예측됐다.

면적만 여의도의 14배에 달한다. 목포 신항, 광양항 등 전남 항구도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기고 한빛원전을 비롯, 해안에 위치한 시설은 피해 영향권에 포함됐다.

KEI 측은 2100년 전남지역에는 18만8000여명에 달하는 이주민이 발생,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고 이들에 드는 사회적 비용도 연간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KEI 관계자는 "더 늦기 전에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야 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감안한 연구와 대비가 절실히"하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광주 27% '불투수면'… “빗물 안스며든다”

서울·부산 이어 심각… 도심침수·지하수 고갈 등 악영향

광주 지역 토지 4분의 1 가량은 콘크리트·아스팔트·보도블록 등으로 덮여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는 불투수면이 전체 면적의 46.3%에 달했다.

환경부의 전국 16개 시·도별 불투수 면적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빗물이 빠지지 못하는 불투수 면적률이 27%에 달해 7대 광역시 중 서울(54.4%)과 부산(30.3%)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천의 경우 불투수 면적률이 47%에 달해 조사 대상인 전국 850개 하천 중 18번 째였다.

불투수면이 많으면 땅에 흡수되는 빗물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집중 호우나 태풍 시

도심 침수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하천이 마르는 '건천(乾川)화' 현상을 일으켜 수질 오염도 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불투수 면적률은 7.9%로 1970년 3%에 비해 2.7배가량 증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심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불투수 면적률이 늘고 있는 만큼 빗물이 순환할 수 있는 '그린 빗물인프라' 기술을 개발해 적용하는 등 불투수면 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주유소 일대 토양오염 심각

광주·전남 15곳 저장탱크·배관서 독성 화학물질 유출

광주·전남 주유소 15곳의 저장 탱크, 배관 등에서 벤젠과 같은 독성 화학물질이 토양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2년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광주 351곳의 주유소 중 4곳, 전남 1301곳 주유소 가운데 11곳이 화학물질 토양 오염 기준치를 넘어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2곳, 전남 2곳의 주유소는 토양환경보존법에 따라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높아 대책이 필요한 '대책기준'

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 A주유소의 경우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농도(3mg/kg)를 초과한 7mg/kg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경유에 섞여 토양 등으로 유출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의 경우

빈혈, 백내장 등 각종 질환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유소의 경우 현행 토지환경보존법상 적발제도도 고태료가 300만원에 불과하지만 지하 탱크 및 배관 공사에는 수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도 미흡하다는 게 흥 의원 설명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주환경연합, 19일 영산강 정회활동

'강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진행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황룡강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영산강을 둘러보면서 정회활동을 펼치는 '강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황룡강 임동교에서 출발, 송산유원지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쓰레기 정소 등 정화활동을 펼치고 영산강 주변에서 자라는 유해 식물 현황 등을 살펴본다.

광주·전남 고등학생 이상 참여 가능하고 광주환경운동연합 누리집(<http://gjkfem.or.kr>)과 전화(062-514-247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5000원.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푸른길, 18일부터 7주간 시민 참여

'나는 마을과 도시의 정원사' 진행

시민단체 <푸른길>은 18일부터 7주 동안 진행하는 '나는 마을과 도시의 정원사'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직접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 가드너 양성 프로그램'으로, 디자인·식물·시설물 목공에 등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진행된다.

조동동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 오경하 가든 디자이너, 노민영 정원코디네이터 등 조경 업계 전문가들이 각각 강연자로 나서 정원을 가꾸는 데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소개한다.

7주 교육 과정 이후에는 내년 4월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봄꽃 박람회-시민 참여 정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15만원. 문의 062-514-2444.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대형무척추동물 생태도감' 발간

환경과학원, 204종 정보 등 수록

영화로 우리에게 친숙한 연가시는 국내 하천에 서식하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에 속한다. 물을 통해 균충의 몸에 침투할 뿐, 영화처럼 변종 꽈 사람에게 감염되지는 않는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연가시를 포함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204종의 사진과 특징, 정보 등이 수록된 '한국산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생태도감'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뇌적률, 수조, 나뭇가지 등 수중바닥에서 서식하는 생물 중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크기의 무척추동물을 말하며, 생물학적 수질 평가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진도맛집**

월계동 817-5번지  
비자락회무침, 우렁회무침  
점심 : 애호박찌개, 우렁쌈밥  
대표 고광숙  
☎(062)971-4488

**한우짜글비전문점(첨단점)**

광산구 쌍암동 664-6번지 첨단병원앞  
고기류, 식사류등  
전문점 최선의 서비스  
☎(062)971-5666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42-1번지  
사주, 관상, 궁합, 택일, 개명  
재물운, 혼사, 묘지상담  
☎(062)224-7687

**고전방**

동구 궁동 34-4번지 종양초등학교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광주화랑**

동구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062)232-4784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고미술품 전문  
대표 박환승  
☎(062)222-6866

**한맛**

서구 염주동 관주은행사거리 이정현외과근처  
활어회, 선어회, 회무침, 흥어삼합, 보쌈  
해물탕, 이구탕, 아구찜, 오리탕  
단체예약현영  
☎(062)373-0007

**엄마손분식**

북구 두암동 농협3거리 종로로  
단체주문, 이침주문 예약현영  
미리전화주시면  
바로 포장해 가실수 있습니다  
☎(010)7202-1521

**황금가마골소머리국밥**

우산동 4-2번지 광주병원신관 기나의료기  
소머리국밥, 수육곱창 전골 전문  
☎(062)572-7272

**대림당한약방**

학1동 29-4번지 남광주시거리  
친절하게 진료하는 전통한의사  
☎(062)227-4097

**삼보컴퓨턴첨단점**

월계동 835-1 월계초등학교에서 방통대사이  
모든 컴퓨터 수리 전문점  
대표 김경모  
☎(062)972-3512

**제이당구장**

우산동 606-5번지 현대@에서 우체국앞 한남티2층  
국제식 대대보유  
☎(010)3644-7923

**백운보석사우나·헬스**

남구 진월동 312-1번지 롯데수퍼옆  
헬스·사우나 24시간 영업  
☎(062)651-4140

**자금성**

북구 임동 188-1번지 대보맨션앞  
정통중화요리전문  
자금성 셋트 메뉴판매  
☎(062)511-4043

**HD코리아(주)소니센터광주점**

북구 임동 상무대로 1273 임동오거리  
Sony 광주 판매 전시장  
☎(062)522-2000